

SK 매연 저감장치 일본서 “돌풍”

2003년 7월부터 총 8000대 판매 ... 일본시장 점유율 3위에 올라

SK가 독자적으로 만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가 자동차 선진국인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SK는 2003년 7월 일본 수출을 시작해 2004년 11월까지 총 8000대를 팔아 일본의 메이저를 제치고 판매량 3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물질을 SK가 자체 개발한 촉매를 이용해 제거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대당 1000만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로 일본에서 지금까지 매출 800억원을 올렸다.

SK는 10년여에 걸친 연구개발과 연구비 200억원을 투입해 촉매 개발에 성공했고 기타 장치를 납품받아 일본 수출을 시작했다.

SK 관계자는 “일본에서 매연저감장치 인증기업 19개 중 후발 진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절반수준이고 크기도 작아 차량 개조 없이 설치하는 장점이 있어 일본시장을 파고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은 도쿄를 포함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시장규모가 약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수도권에 우선 도입하는 등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4/12/14>